

## 【 해외금융 뉴스: 세계 】

### G20, 글로벌 불균형 예시적 가이드라인 합의

- 4월 14~17일 중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글로벌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하고 불균형의 성격과 불균형 조정 저해 원인을 평가하는 두 번째 단계에 착수한다고 밝힘.
  - G20는 작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국과 흑자국 사이의 불균형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데 주목하고, 금년 2월 파리 회의에서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지표로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민간부채, 대외불균형을 선정함.
  -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는 4가지 방법론을 통해 불균형 국가를 분류하기로 합의함.
    - 자원부국처럼 개별 국가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는 구조적 접근법,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통계적 접근법,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 그룹에 대해 특정 시점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는 횡단면 접근법, 전체 G20 국가들 대비 개별 국가들의 지표들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통계적 접근법을 도입하기로 함.
  - 4가지 방법 중 최소 2가지 방법에서 불균형 국가로 분류되면 2단계의 심층 평가 대상으로 확정될 예정임.
  - 한편, 이와 별도로 세계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G20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국가를 2단계 평가 대상에 넣기로 함.
    - 미국을 비롯한 중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등 7개국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할 목표치가 아니라 심층분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힘으로써 G20 체제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남.
  - G20 의장성명에는 가이드라인이 2단계 평가 대상 국가 선정시 사용될 기준값을 제공할 뿐이라고 밝힘으로써 강제성은 띄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번 회의에서 중국 등의 반대로 외환보유액, 실질실효환율이 평가지표에 추가되지 못한 점에서도 G20 체제의 한계가 드러남.

(G20 4/16, Wall Street Journal 4/16)